

“생활에 녹아있는 美 보여주겠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외국인 감독 中 아이웨이웨이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다. 중국의 유명한 현대시인 아이 칭의 아들인 그는 지식인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 신장으로 쫓겨났고, 문화혁명 때 고비사막의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반정부적인 작품을 발표해온 그는 2007년 독일 카셀도큐멘타와 일본, 독일,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일상 생활 속의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 스스로 참여해 전시 꾸리는 방식으로

희생통해 민주화 이룬 광주 정체성 담을 것”

-디자인비엔날레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소감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디자인 비전문가인) 나를 선택한 것에 놀랐다. 하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디자인은 완전한 세계이고, 반대로 굉장히 낯설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 같다. 유명상품의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일상생활의 디자인을 선보이겠다.

-지난 5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기획한 ‘오월의 꽃’전에도 작가로 참여했는데, 광주에 대한 평소 생각은.

▲광주는 아시아 많은 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을 남긴 곳이다. 중국에 있을 때 광주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항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 저항하던 시기였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곤 했다. 광주의 항쟁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광주는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소중한 항쟁을 펼쳤다. 한국은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지만 중국은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80년 당시의 희생을 기억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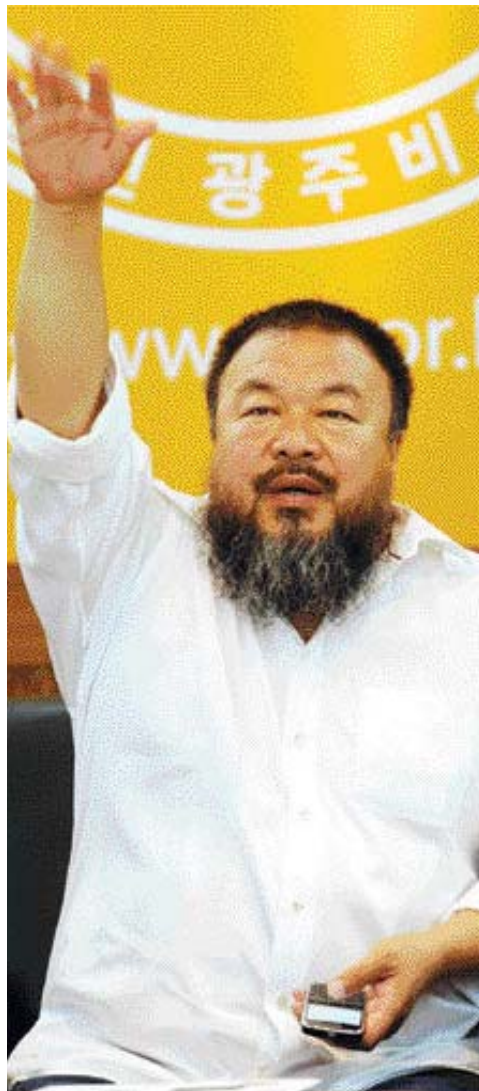
-평소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어떤 것인가.

▲현대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구세대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 형태나 패턴들을 해석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싶은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인터넷 등 가상현실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삶이 변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더욱 새로운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디자인이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유명 디자인의 ‘가짜’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일상 생활 속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 또 이란의 혁



명과 중국의 민주화 활동 등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쪽지에 적힌 메모 등 아주 작은 디자인적 요소도 찾아내겠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광주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전시를 꾸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 속에 뭔가는 있지만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것, 작은 아이디어 등을 보여주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에도 예술 물결

문진위, 특화지구 활성화 사업 계획 발표

광주 예술의 거리와 금남지하상가,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개미시장과 아트살롱, 프린지 페스티벌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택)는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2010아시아문화예술 특화지구 활성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예술의 거리와 금남지하상가 사업은 전남대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천득엽)와 매개공간 미나리(대표 박성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예술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 작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8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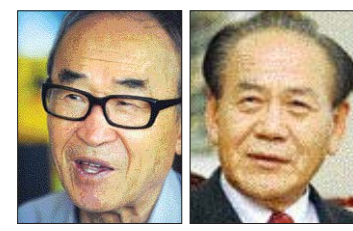
화예술 개미시장을 열 계획이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도 체험과 공동예술제 등 체험행사도 열리며, 광주비엔날레와 총장로축제 기간 공연과 퍼포먼스, 시낭송 등 프린지페스티벌도 개최한다. 또 상인과 문화예술단체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젊은 작가를 주축으로한 일상 창작소와 이들 작품을 전시·공연할 아트살롱 ‘플러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술의 거리 골목길 이야기 맵과 이를 바탕으로 상가 CF를 제작해 예술의 거리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 때 전시장으로 활용돼 호평을 받았던 대인시장은 올해에도 예술시장 프로젝트 ‘느티나

무 시장’을 진행한다. 광주문화자치회(총감독 전교필)가 주체가 된 이 프로젝트는 시장상인과 35명의 상주작가가 주축이 돼 문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새로운 문화인력 양성의 장으로 만들고 예술가와 시장, 문화공간으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문화창작소, 교육이벤트 사업, 대인시장 문화소풍, 시장 속 시민문화공간사업을 펼친다. 상인과 예술가,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시민문화창작소에는 대인시장 작화 예술의 거리를 개발해 판매하는 아트숍과 기획학교가 들어서며 공부 카페,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춤추는 고래’가 운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흥 탐진강변서 문학을 논하다

전국 문학인대회 30~31일-고은·김용택 등 참석

전국 문학인들의 축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국문학인대회가 올해에도 장흥 일원에서 열린다. ‘제3회 대한민국 경남지역 문학제’ 기간(7월28~8월1일)인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문학인대회는 ‘물(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고은·김용택·신세훈, 송찬호·이호철·한승원 등 문학인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인 30일 오후 4시에는 장흥군민회관 3층에서 장일구(전남대 교수)씨의 사회로 ‘송기숙의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문학세미나



<고은> <송기숙>
가 열린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문학인대회 본 행사가 시작된다. 전국백일장대회 시상과 송기숙의 ‘5월의 미소’ 퍼포먼스, 문학인의 날 선언이 진행되며 동요, 창작관소리 등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장흥 지역 5개 중·고등학교에서 김용택·이정복·김복춘·복효근 등 유명 문인들이 강사로 초청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문학인대회 이틀째인 31일에는 장흥 문학 현장을 답사하는 문학답사가 한승원 문학산책로→한승원의 해산토굴→송기숙의 생가→천관산문학공원→이청준생가를 코스로 진행되며 이날 이청준 묘역에서 열리는 2주기 추모식과 ‘이청준문학자리’개원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양동시장 상인 등 시민참여행사로

오는 9월 개막하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로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7일 이사회를 통해 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양동시장 프로젝트’ ‘시민참여특별프로젝트’ 개최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동시장 복개상가 옥상에 새로 들어서는 문화공간 ‘어진관’에서 펼쳐지는 ‘양동시장 프로젝트’는 시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체험 행사로 펼쳐진다. 어진관 벽면에 시장 상인들이 글, 사진, 사연을 담은 낙서판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나무 토막을 이용해 조각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재단 이사회 ‘특별프로젝트’ 의결

시민들을 위한 참여형 행사도 늘어났다. ‘시민참여특별프로젝트’는 광주지역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학교 동아리 등 시민들이 참여해 25개의 전시회를 만드는 ‘나도 비엔날레 작가’와 문화 예술단체들의 공연인 ‘주말 이벤트’로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더위 탈출

윤경희 개인전-무등갤러리

수채화가 윤경희씨의 첫 개인전이 29일부터 8월4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자연을 소재로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와 관계를 모색하는 작품을 주로 그려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계곡’과 ‘설경’을 주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계곡’ 시리즈에서는 골짜기와 낙차 큰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의 힘찬 움직임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또 눈 덮인 마을과 산야를 그린 ‘설경’은 모든 것이 멈춰선 고요한 세상의 눈부심과 한기가 동시에 서려있다. 산과 마을, 들관, 나무, 인적까지 온통 눈 속에 묻혀 시간을 불태워 놓

을 주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계곡’ 시리즈에서는 골짜기와 낙차 큰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의 힘찬 움직임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또 눈 덮인 마을과 산야를 그린 ‘설경’은 모든 것이 멈춰선 고요한 세상의 눈부심과 한기가 동시에 서려있다. 산과 마을, 들관, 나무, 인적까지 온통 눈 속에 묻혀 시간을 불태워 놓



‘무등계곡’은 듯 고적감마저 느끼게 한다. 광주사범대학을 졸업한 윤씨는 사회, 물과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북장터

전북장터 전문점

전북장터

062)576-8600

아이엘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물려있는 서비스 (500석 침베)

062)671-1199

명스퀘어 타워빌 2층 COV 빌